+

## 숨쉴때 '쌕쌕'…숨 편안한 하루 '관리'에서 시작된다



문도식 조선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교수

천식

기관지 만성 염증에 숨길 좁아져 기침·호흡 곤란 등 일상 속 신호 유전·환경적 만성 알레르기 질환 흡입기 치료·생활습관 개선 효과

60대 A씨는 수개월 전부터 기침이 잦고 밤에 숨이 차서 자주 잠에서 깼다. 처음에는 감기라고 생각했지만 환절기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면 증상이 더 심해졌다. '시간이 지나면 낫겠지'하 고 버텼지만 나아지지 않았다. 병원을 찾은 결과 '천식' 진단을 받았다. 흡입기를 꾸준히 사용하 고 생활습관을 바꾸자 증상은 빠르게 호전됐다. 지금은 운동도 무리 없이 가능하다.

천식은 소아·청소년기에 흔하지만, 이처럼 성 인이나 노년층에서도 발병할 수 있는 만성 알레 르기 질환이다. 특히 아토피, 알레르기 비염, 가 족 중 천식 환자가 있다면 더 주의해야 한다. 문 도식 조선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를 통해 천식 의 증상과 치료법, 예방법 등을 알아본다.

◇기침·가슴답답등반복'천식'가능성

천식은 기관지에 만성 염증이 생겨 숨길이 좁 아지는 질환이다.

유전적 요인과 더불어 미세먼지, 흡연, 감염, 기후 변화, 알레르기 물질(집먼지진드기·꽃가 루·동물 털 등)이 주요 원인이다. 부모 중 한 명 이 천식을 앓고 있으면 자녀에게 발생할 확률 이 높고 두 명 모두 앓는 경우는 위험이 더욱 커 진다.

대표적인 증상은 기침, 호흡곤란, 가슴 답답 함,숨쉴때'쌕쌕'소리다.

특히 밤이나 새벽에 증상이 심해지고 환절기 나 공기가 건조한 날 또는 감기에 걸렸을 때 악 화되는 특징이 있다.

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단순 감기가 아니라 천식일 가능성이 있다.

◇정확한진단은 '폐기능검사'로

천식은 증상만으로는 확진이 어렵다. 병원에 서는 '폐기능 검사 (spirometry) '를 통해 숨을 내 쉬는 힘과 양을 측정하고 기관지가 수축되는지 를확인한다.

기침이 오래 지속되거나 숨이 차다고 해서 모 두 천식은 아니므로 의료진의 정확한 검사와 진 단이 필수다.

◇가장 효과적 치료 방법 '흡입기'

천식은 만성적인 기도 염증이 원인이므로 염 증을 조절하는 치료가 중요하다.

현재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흡입형 스테로이 드가 포함된 흡입기이다. 이는 염증을 가라앉히 고 증상 악화를 막아주는 치료의 핵심이다.

과거에는 '벤토린'처럼 증상만 잠시 완화시



문도식 조선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가 내원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.

〈조선대병원 제공〉

키는 속효성 기관지확장제를 사용했지만 이 약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병을 악 화시킬 수 있다.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 흡입형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약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.

최근에는 면역치료(알레르기 원인물질을 조 금씩 투여해 면역을 조절하는 방법)나, 생물학 적 제제 주사 치료(특정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최신 항체 주사)가 도입돼 중증 천식 환자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다.

천식은 만성 질환이므로 증상이 호전되었다 고 임의로 중단하면 다시 악화될 수 있다.

◇생활 속관리가 치료의 연장선

천식은 꾸준한 관리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질환이다. 흡입기 치료를 성실히 이어가는 것과 더불어 일상 속작은 습관들을 개선하면 증상 조 절과 급성 악화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.

먼저,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피하는 것이 중요 하다. 집먼지진드기나 꽃가루, 반려동물의 털, 곰팡이 등은 기도 염증을 자극해 천식을 악화시 킬 수 있다. 가능하면 알레르기 유발 환경을 줄 이고, 실내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.

흡연은 천식 관리에 가장 해로운 요인 중 하나 다. 담배 연기는 기관지 염증을 심화시키고 약물 효과를 떨어뜨리므로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 구 성원 모두 금연을 실천해야 한다.

실내 환경도 중요한 관리 요소다. 온도는 20-2 2도, 습도는 40-50도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이상 적이며 공기가 건조하거나 먼지가 많은 환경은 피하는 것이 좋다.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역시 도움이 된다. 무리하지 않는 걷기나 가벼운 스트 레칭은 폐 기능을 유지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향 상시킨다.

또한 감염 예방을 위한 노력도 필수적이다.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은 기본이며 매년 인플루엔 자 백신을 포함해 코로나19와 RSV (호흡기세포 융합바이러스) 백신 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. 이 는 천식 환자에서 호흡기 감염으로 인한 급성 악 화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.

특히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불가피한 외출 시에는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. 이러한 일상적인 관리 습관이 결 국 천식 치료의 연장선이며 꾸준히 실천할수록 숨쉬는 일상이 한결 편안해진다.

조기 진단과 꾸준한 치료, 생활습관 개선이 함 께 이뤄질 때 천식은 충분히 조절 가능한 질환이 다. 기침이나 호흡곤란의 증상이 반복되고 호전, 악화를 반복한다면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함께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겠다.

문도식 교수는 "천식은 방치하면 생명에 지장 을 줄 수 있는 위험한 질환이지만 꾸준한 관리만 으로도 정상적인 생활이 충분히 가능하기에 환 자들이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두려움 대신 '내 호흡을 지킨다'는 적극적인 태도로 치료에 임하셨으면 한다"고 말했다. /정리=기수희기자

## 전남대·GIST, 급성신부전 억제 기술 세계 첫 개발

김수완ㆍ이재영 교수팀 공동 연구

손상된 신장 부위에서만 작동 '지능형 나노의약 플랫폼' 구축 만성 진행 과정 근본적 차단 "당뇨성 신증 등에도 응용 기대"

전남대와 광주과학기술원(GIST·지스트) 연 구팀이 급성 신장 손상의 만성 악화 진행을 막 을 수 있는 새로운 치료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 발했다.

28일 전남대학교 등에 따르면 이번 연구에는 김수완 전남대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교수를 비

**CMYK** 





서상헌

롯해 마성권 교수, 서상헌 연구원과 이재영 GIS T 신소재공학과 교수를 비롯한 이승준·김정현 ·박세현 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.

급성신부전은 혈류 차단, 독성물질, 패혈증 등으 로신장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질환으로, 회복후 에도상당수환자가만성신부전으로진행된다.

이 과정에는 과도하게 생성된 활성산소(RO S)가 세포 손상과 염증, 섬유화를 일으켜 신장 을 지속적으로 망가뜨리지만, 지금까지 이를 근

본적으로 차단하는 치료법은 없었다.

연구팀은 이 같은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손상된 신장 부위 에서만 작동하는 '지능형 나 노의약 플랫폼'을 구축했다.

핵심은 환원 그래핀(Reduce

d Graphene Oxide·rGO) 기반으로 만들어진 '스 마트 약물 운반체'로, 손상 부위에서 과도하게 생 성된활성산소를 제거하면서 동시에 약물을 필요 한부위에만전달할수있도록설계됐다.

연구팀은 rGO 표면에 히알루론산(HA)을 결합해 신장 손상 부위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 도록 하고 그 위에 항섬유화 약물 파리칼시톨 (paricalcitol)을 탑재했다.

이 구조는 활성산소가 존재할 때만 약물이 방출

+

되는 활성산소 반응형 (ROS-responsive) 메커니즘 을구현해정상조직에는영향을주지않는다. 이 복합체는 'P/HA/rGO 나노의약'으로 명

명됐다. 히알루론산 결합으로 체내 안정성과 혈중 체

류 시간도 향상돼 약물이 오랫동안 작용하며 손 상된 부위에서만 정밀하게 치료 효과를 낸다.

세포 실험과 동물 실험 결과, 개발된 나노복 합체는 약물의 93%를 안정적으로 적재할 수 있 었으며 손상된 부위의 활성산소에 반응해 30일 간 약물의 26%를 단계적으로 방출했다. 이는 일 반 조건보다 약 27배 높은 방출 효율로, 손상 부 위에만 약물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.

김수완 전남대 교수는 "활성산소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와 섬유화를 동시에 억제할 수 있어 기 존치료법의 한계를 극복할 것"이라고 강조했다.

이재영 GIST 교수는 "활성산소 환경에서만 작동하는 지능형 나노의약 플랫폼으로, 향후 당 뇨성 신증 등 다양한 신장 질환 치료에도 응용 될수있을것"이라고설명했다. /박현진기자 광주보훈병원, 다빈치 로봇

전립선 수술 '500례 달성'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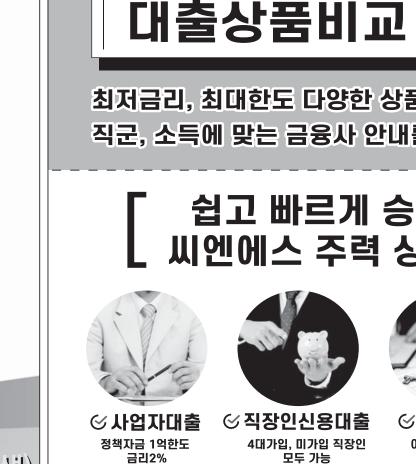
광주보훈병원은 28일 "최근 다빈치 로봇 전 립선 수술 500례를 달성, 병원 전문진료센터 1 층 전립선센터 앞에서 기념식을 가졌다"고 밝

이번 성과는 2022년 지방 보훈병원 최초로 다 빈치 Xi 로봇수술기를 도입한 이후 3년 만에 거 둔 의미 있는 결과로, 첨단 수술 역량을 기반으 로한 진료 경쟁력 강화를 상징한다.

광주보훈병원은 2023년 10월 첫 로봇수술 시 행 후 지난해 상반기에 100례를 돌파했고, 올해 500례를 달성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.

이삼용 병원장은 "현재 추진 중인 중증응급 의료 인프라 확장 사업과 수술실 확충이 완료되 면 향후 공공의료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"고 말했다. /기수희기자





상담전화

등록번호: 2023-광주광산-0025



010-3929-1403